

올해 3분기 지역 건설경기 한파 불었다

광주·전남 건설수주 전년비 각각 82%·50% 감소 인구 유출 연령대 20대 2천368명 1위...수출도 ↓

올해 3분기 광주·전남 건설 경기가 수주액 감소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역 수출도 감소세를 보였고 타 지역으로 떠나는 20대가 인구 유출 연령대 1위로 나타났다. 11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호남권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지난 3분기 건설수주액은 2천833억원으로 전년동분기(1조5천300

0억) 대비 81.6% 급감했다. 공종별로 보면 건축(-82.5%), 토목(-58.7%)과 발주자별 공종(-38.3%), 민간(-83.1%) 모두 감소했다. 전남도 건설수주액은 5천296억원으로 같은 기간(1조594억) 대비 50.0% 줄었다. 공종·발주자별로는 건축(-73.4%), 토목(-29.9%), 민간(-87.2%)은 감소했고 공공부문(26.9%)은 증가했다.

구분	3분기수주액	전남
3분기수주액	2천833억원	5천296억원
공종별	건축(-82.5%) 토목(-58.7%) 발주자별 공종(-38.3%) 민간(-83.1%)	공공·발주자별 건축(-73.4%) 토목(-29.9%) 민간(-87.2%)
자료	호남통계청	

피혁기계(1천60.7%), 고무타이어·튜브(121%) 등은 증가했지만 높은 기어도를 차지하는 프로세스와 컨트롤러(-46.8%), 축전기와 전지(-68.1%), 승용차(-3.5%) 등이 수출액 감소에 크게 작용했다. 전남 3분기 수출액은 109억9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선박(119.7%), 기타 유기·무기 화합물(14.1%) 등이 증가했으나 금속광(-60.9%), 기타 인조플라스틱·동 제품(-23.1%), 기타 석유제품(-16.6%), 경유(-12.9%) 등이 줄었다. 연령별 지역 인구 유출은 20대가 2천368명(광주 827명, 전남 1천5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3분기 광주지역 인구는 전입 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아 1천661명이 순유출됐다. 연령대와 지역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157명)과 북구(1천142명)에서의 순유입이 발생했지만, 광산구(1천324명)와 20-29세(827명)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올해 1분기 2천709명, 2분기 1천565명이 광주를 떠나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전남은 같은 기간 736명이 순유출됐다. 50-59세 570명, 무안군 1천533명, 영광군 405명 등이 순유입 됐지만, 20-29세 1천541명, 목포시 1천448명이 각각 순유출됐다. /안태호 기자

“지능형 제조혁신 출발점...”

광주TP,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성공적 구축 과정·주의사항 공유...사업 실효성 향상 모색



스마트공장을 통한 지역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마련됐다.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TP)는 11일 “광주시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

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4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성과공유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진>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시, 광주TP가 공동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실무자, 관련 전문가 160여명이 참석해 도입 기업들의 혁신 사례와 애로사항을 나누고, 정책적 지원 방향과 미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행사 첫날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경과와 성과, 향후 추진 방향이 발표됐다. 이어진 전문가 강연에서는 스마트공장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다뤘다. 한국알프스, 대우에이텍, 미보 등 스마트공장 구축에 성공한 기업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구축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우수사례 발표는 구축 초기부터 문제 해결 및 효율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다른 참여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과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워크숍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중 발견된 개선점과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며, 향후 스마트공장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

해 필요한 자원과 정책적 지원을 구체화하고, 차후 스마트공장 구축 시 발생할 어려움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도출했다. 행사 이튿날에는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조별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스마트공장 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선할 점과 새로운 요구 사항을 제안하며, 보다 효율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고, 기술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들이 구체화되며 현장 중심의 계획들이 마련됐다. 김명집 광주TP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스마트 제조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솔 기자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89년
선진안마기술집약체

Panasonic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KOREA 세일 페스타

MAN1 50만원DC + 상품권20만원 + 무선청소기

4년 무상보증 1년+3년

GOOD DESIGN AWARD 2023

미리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연말 집안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소품 기획행사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포커시스'는 크리스마스빌리지 및 트리 유적박스와 스노우볼, 오르골까지 다양한 소품을 선보인다. 폴란드 테이블웨어 브랜드인 '아티스티나'도 크리스마스 에디션 식기뿐만 아니라 유적박, 오르골, 장식품 등을 준비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광주신세계, 美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상륙

최고급 메탈 소재 데이코 냉장고 등 첫 선배

철학 아래 지난 1948년 가정용 환기 후드를 발명해 선보였다. 이후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했다. 대표 제품은 빌트인(built-in) 냉장고로, 냉장고 내부 전면에 최고급 메탈 소재를 적용해 식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정온성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췄다. 이와 함께 와인 셀러, 오븐,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정은솔 기자

농어촌공, 쌀 400포대 지역 사회복지시설 전달

한국농어촌공사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 쌀 400포대(20kg 기준)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광주지부를 통해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5년여 전부터 꾸준히 나주 대표 농산물인 쌀을 구매해 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나주 쌀 기부 프로젝트'로 쌀 소비 촉진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지원한 총규모는 약 42만t(2천128포대)에 달한다. 특히, 지역 전통시장을 이용해 기부할 쌀을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올 한 해 농업인의 정성으로 수확한 쌀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임재만 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안마의자 MAN1 구매고객 대상 50만원 DC + 상품권 20만원 + 무선청소기

기간: 2024.11.01 ~ 2024.11.30

MAK1

MAJ7

MAF1

MA32

MAC3

MAC9

MA22

MA05

파나소닉 무선청소기 MC-A10 (249,000원) 택1 *색상 랜덤발송

※판매점에 따라 혜택은 다소 상이합니다

파나소닉프라자 062)522-2000
파나소닉 금호월드점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층 139호